

광주U대회 성공 시민에 달렸다



“오빠 광주 스타일” 입촌식 말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3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미국 선수단 입촌식에 참석 한 선수들이 한국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따뜻한 남도의 정·역동적인 삶 세계에 알릴 기회
윤장현 시장 “차량 2부제·기초질서 지키기” 호소

D-2 지구촌이 ‘빛고를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성공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어사다.

〈관련기사 2·3·8〉
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메르스 확산 공포’와 대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3일 대단원의 막을 올리게 된다.

대회 성공 여부에 따라 한반도 서남쪽 작은 도시인 ‘빛고를 광주’는 이제 세계로, 미래로 ‘열린 광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U대회 성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협조에 달려있다.

특히 한국 현대사 중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끌어 온 나눔과 연대, 희생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기 노력해온 광주·전남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대회 성공 개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대회 자원봉사자 9300여명이 벌써부터 경기장 등 주요 시설에서 행사 진행과 수송 업무, 통역 등을 맡아 대회 성공개최를 돕는 등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 또한, 따뜻한 남도의 정(情)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문화, 역동적 삶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동참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특히 개·폐회식이 열리는 날 월드컵경기장의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필수적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광주 U대회를 시민의 힘을 모아 성공개최하고자 호소했다.

윤 시장은 이날 발표한 대시민 호소문에서 “147개국 1만3000명의 선수단이 귀한 손님으로 우리 광주를 방문한다”면서 “청결·질서·친절 등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예방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질서외식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윤 시장은 “광주 U대회는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인 만큼 시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전 세계 선수단을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며 광주 U대회 성공 개최는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도시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호남선 KTX, 8월부터 증편·증차 검토”

유일호 국토부장관 밝혀
광주송정역사 주차장 증설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지난 30일 호남고속철(KTX) 증편 문제와 관련, “8월을 목표로 주중에는 증편, 주말에는 차량을 늘리는 증차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수서발 고속철 개통과 함께 주말 증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북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대책 간담회’에서 “호남선 수요가 예측치보다 8.3% 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연해 코레일 사장은 “주말에는 10량짜리 차량을 20량짜리로 일부 바꿔 증차하고 주중에는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라선 증편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호남고속철 2단계(송정-목포) 구간 확장 지연에 대해 “우리(국토부)는 그렇게(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생각하고 있으나 예산당국(기재부)은 다른 노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구간이 빨리 결정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호남선KTX에 한해 특별 할인

폭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주송정역사의 혼잡한 여객동선을 분산하기 위해 1단계로 엘리베이터 2대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하며 역사 서편 공간에 150면의 주차장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실 22칸(남 9, 여 13)을 신축하고 역무실을 4층으로 이전·증축하는 등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화순~광주 동구)



광주일보사는 오는 8월15일 화순과 광주를 이어주는 너릿재 옛길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너릿재 옛길을 널리 알리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 코스인 너릿재 옛길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될 만큼 곳곳에 편백나무·소나무 등 천연수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명품 숲길입니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가 된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옛 전남도청~화순군청)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흑서기 대회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가족들께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8월 15일(토) 08 : 00 출발
- 장소 : 너릿재 옛길 주차장
- 종목 : 풀코스, 25km, 8.5km
- 접수 : http://marathonworld.kr
- 문의 : (061) 375-1288
- 주최 :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재단
- 주관 : 마라톤세상

光州日報社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마리아 린드

스웨덴 텐스타 콘스트홀 디렉터



마리아 린드(Maria Lind·49) 스웨덴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홀(Tensta Konsthall) 디렉터가 내년 열리는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선임됐다.

〈관련기사 17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30일 오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아 린드는 그동안 제도권에서 선보이는 전시와 차별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예술과 사회의 매개자 역할을 탐구해온 측면에서 창설 20주년을 넘어선 광주비엔날레의 새로운 비전과 당면 과제에 부합한 총감독”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스웨덴 출신 마리아 린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소외된 지역과 공간이 문화로 통해 활성화되고 외부 세계와 연계되는 시민 참여 전시를 주로 선보여왔다.

2011년부터 마리아 린드가 몸담고 있는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홀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해 온 북유럽의 주요 문화 거점 공간이다. 특히 마리아 린드는 지난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여했고, 2013년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 교수를 맡는 등 광주와도 인연이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U대회 야구 금빛열정▶20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우리가 먼저 웃고! 우리가 먼저 지키고!

선수는 열정 금메달, 시민은 질서 금메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7.3 ~ 7.14(12일간)

광주U대회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